

국산 비만치료제 시대 열었다 한미 ‘에페’ 이을 추격전 활발

한미약품, 신약의 5가지 함량에
국내 식약처 품목허가 최종 승인
올해 내 국내 공급·출시 준비 착수

HK이노엔, 국내 임상 3상 진입
온코닉테라퓨틱스, 연구성과 발표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첫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으며 상용화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외 국산 약물이 주를 이루던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의 판도 변화는 물론 비만을 넘어 대사질환 전반에서 국산 신약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11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7일 독자 개발한 비만 치료 신약 ‘에페오토인젝터주(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이하 에페)’의 2mg, 4mg, 6mg, 8mg, 10mg 등 5가지 함량에 대해 국내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최종 승인 받았다고 공시했다.

이번 승인으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 발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국내 기술력으로 일궈낸 ‘국산 비만약 1호’에 이름을 올렸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에 국내 공급 및 본격 출시를 목표로 생산 및 유통 준비에 착수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만의 플랫폼 기술인 ‘웍스커버리’가 적용된 지속형 GLP-1 수용체 작용제다. 약물이 체내에서 서서히 방출되도록 설계돼 기존 GLP-1 계열 치료제의 주요 이상사례로 꼽히던 구토, 오심, 설사 등 위장관계 부작용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외국산 치료제와 달리 ‘한국인 맞춤형’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차별성을 갖췄다. 당뇨병을 동반하지 않은 성인 비만자 44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임상 3상(40주차 중간 평가) 결과, 에페글레나타이드 투여군의 평균 체중 감소율은 -9.75%로 위약군 -0.95% 대비 우수한 효과를 입증했다.

특히 체중이 5% 이상 감량된 대상자는 79.42%, 10% 이상 감량된 대상자는 49.46%에 달했다. 소그룹 분석에서는 초



에페오토인젝터주(성분명: 에페글레나타이드, 이하 에페) 2mg, 4mg, 6mg, 8mg, 10mg.

/한미약품

고도비만이 아닌 체질량지수(BMI) 30kg/m² 미만의 여성군에서 체중 감소율이 1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체 생산을 통한 가격 및 수급 경쟁력도 강점으로 꼽힌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약품 평택 바이오플랜트에서 직접 생산될 예정으로 공급 부족 및 품질 이슈에 적극 대응 가능하다.

한미약품은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치료 영역을 비만에서 당뇨병 및 대사질환 전반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미 글로벌 대규모 심혈관계 안전성 연구를 통해 심혈관 및 신장 질환 사건 위험 감소 효능을 확인했다. 또 SGLT-2 저해제 및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 3상 등 당뇨 적응증 추구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해외 시장 공략도 구체화했다. 한미약품은 올해 초 멕시코 최대 제약사 산페르와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현지 허가 절차를 추진 중이다. 성인 비만 유병률이 36.8%에 달하는 멕시코를 거점으로 중남미, 중동,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권역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한미약품 측은 “국내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철저한 품질 관리와 합리적인 가격 체계를 바탕으로 환자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산 1호 비만 신약의 상용화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추격 경쟁도 활발하다.

HK이노엔은 중국 사이윈드 바이오사이언스로부터 도입한 주 1회 투여 제형의 GLP-1 비만치료제 ‘IN-B00009(성분명: 에크노글루타이드)’의 국내 임상 3상에 진입해 있다. JW중외제약의 경우 올해 들어 중국 간앤리 파마슈티컬스에서 ‘보팡글루타이드’를 들여왔다. 지난 8월 식약처에 비만, 제2형 당뇨병 등에 대한 국내 임상 3상시험계획서(IND)를 연달아 제출했다. 보팡글루타이드는 주 1회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발되고 있어 투약 횟수를 줄이는 등 편의성을 극대화하는데 중점을 둔다.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큐보’ 등으로 신약개발 및 상업화 경험을 보유한 제일약품 연구개발 기업 온코닉테라퓨틱스도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11월 14일 미국에서 막을 올리는 세계 최대 비만 학회 ‘오비시티워크 2026’에서 미공개 차세대 비만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 성과를 구두 발표할 예정이다.

국내 신약개발 바이오핵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허가는 외산 의약품 중심의 국내 GLP-1 시장에서 국산 신약의 상업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며 “후발 주자들의 임상 가속화와 함께 국산 비만치료제의 시장 진출 확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숨37, 고급 에센스 입지 강화

시크릿 에센스, 5세대로 새롭게 선보
8700시간 발효 기술로 피부 체력 ↑
피부 전환 주기, 보습·탄력 개선 효과

LG생활건강의 자연·발효 뷰티 숨37이 고급 에센스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강화한다.

숨37은 대표 제품 ‘시크릿 에센스’를 5세대 제품으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시크릿 에센스는 결광 피부를 관리하는 스킨케어이며 2009년 출시부터 지금까지 335만 병 이상 판매됐다.

이번 신제품은 8700시간 발효 기술을 집약했다. 피부 속 노폐물과 산화 스트레스를 비우고, 영양은 채워, 피부 장벽을 지키는 3단계 메커니즘을 설계해 지속적인 피부 본연의 체력을 키워준다.

특히 숨37 독자 성분인 ‘사이토시스(CYTOSIS)’를 처방해 피부바탕을 정돈한다. 피부 임상연구에서 시크릿 에센스 사용 1주일 만에 피부 전환 주기를 56% 개선하는 효과를 입증했다.

또 90% 발효 원액과 기존 대비 14.4% 미세해진 독자 ‘멜팅 세라마이드’를 결합해 보습과 탄력을 구축한다. 이 발효 원



숨37 ‘시크릿 에센스’. /LG생활건강

액은 시크릿 에센스만의 핵심 성분으로 자연 발효 성분에서 분리한 200여 종의 균주에서 선별된 독자 균주 2종을 적용했다.

숨37 브랜드 관계자는 “5세대 시크릿 에센스는 온전히 숨쉬는 피부를 위한 ‘바이오 브레스 과학’ 헤리티지의 결정체”라며 “피부의 편안함과 일상의 건강한 균형을 전달하는 바이오 웰니스 브랜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한올바이오파마, 탈모약 필요한 만큼 사용

국소 도포형 탈모치료제 ‘판그로액 5%’

대용제약 특수관계 기업 한올바이오파마가 먹는 약부터 바르는 약까지 아우르며 탈모 치료 포트폴리오를 확장했다.

한올바이오파마는 두피에 직접 도포하는 국소 도포형 탈모치료제 ‘판그로액 5%’를 새롭게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판그로액 5%’는 일반의약품으로 남성형 탈모증(안드로젠탈모증) 치료에 쓰인다. 미녹시딜 성분을 처방했으며 200mL 대용량으로 구성했다. 스프레이 형태를 적용했고 필요한 만큼 덜어 사용할 수 있는 소분 용기를 함께 제공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번 신제품 출시로 한올바이오파마는

주요 탈모 치료 성분과 제형을 모두 갖췄게 됐다. 기존 제품으로는 피나스테리드 제제 ‘헤어그로징’, 두타스테리드 제제 ‘아다모징’ 및 ‘아다모연질캡슐’, 탈모 보조 치료제 ‘판그로캡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 지난 2022년 대전공장에 탈모치료제 전용 자동화 생산 시설을 구축하는 등 탈모 치료 경쟁력을 지속 강화해 왔다. 그 결과, ‘헤어그로징’의 경우 2025년 9월 월 판매량 250만 정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박수진 한올바이오파마 대표는 “전용 생산라인과 다채로운 제품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탈모 치료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며 “경구제와 외용제를 아우르는 라인업을 강화해 탈모치료제 전문 제약사로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유한양행 “젤리로 일상 활력 채우세요”

구미데이 비건 멀티비타민&미네랄
헬시플레저 트렌드, 비건 가치 담아

유한양행이 종합 영양 보충 브랜드 ‘센스밸런스’에서 구미형 건강기능식품을 기획하며 헬시 플레저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유한양행은 물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필수 영양을 채울 수 있는 ‘구미데이 비건 멀티비타민&미네랄’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양성분 최적화와 섭취 편의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설계해 하루 2알로 일상에 활력을 더해준다.

특히 식물성 원료 기반의 비건 인증을 정식 획득해 비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거나 엄선된 성분을 따지는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혔다.

구미 특유의 쫄쫄하고 탱탱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과일 맛도 구현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즐겁게 건강을 챙



센스밸런스 ‘구미데이 비건 멀티비타민&미네랄’. /유한양행

기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맛과 영양, 비건 가치까지 모두 담아 제품을 다듬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다채로운 라이프스타일과 니즈를 반영한 건강기능식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아모레퍼시픽 설화수 ‘옥용팩’ 재단장

아모레퍼시픽의 글로벌 럭셔리 뷰티 설화수가 브랜드 대표 제품 필오프 마스크 ‘옥용팩’을 재단장했다고 11일 밝혔다.

설화수 옥용팩은 지난 19년간 누적 판매 1130만 개를 기록하며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피부 모공 속 과잉 피지와 노폐물을 제거해 주는 제품이다. 특히 블랙헤드와 화이트헤드는 물론 미세 솜털까지 함께 정돈해 피부를 매끈하게 관리할 수 있다.

이번 재단장으로 필오프 마스크 특유의 피부 자극과 당김 현상을 대폭 개선했다. 콜라겐과 5종 히알루론산을 새롭게 배합해 마스크를 떼어낸 후에도 촉촉한 보습감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여기에 설화수 독자 성분인 ‘자음단’을 더해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키고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한다. /이청하 기자

‘광동 V라인 슬림핏’, 올리브베리 입점

광동제약, 올리브베리 4곳서 선보
체지방 감소 도움 기능성 인정 받아

광동제약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탄산음료 ‘광동 V라인 슬림핏’을 CJ올리브영의 건강 특화 매장 올리브 베리에 입점시키며 웰니스 시장 공략에 나섰다.

광동제약은 광화문점, 강남점, 스타필드안성점, 코엑스점 등 총 4곳 올리브베리에서 광동 V라인 슬림핏을 선보인다고 11일 밝혔다.

광동 V라인 슬림핏은 기능성 표시 제품으로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기능성을 인정받은 개별인정형 원료 ‘옥수수수염·레몬밤추출복합물(CL-5MoA)’를 함유한다.

해당 원료의 기능성은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됐다. 체질량지수(BMI) 25~32kg/m²인 만 19~65세 국내 성인 남녀 105명을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12주 섭취 후 체지방량, 체지방률, 체중, BMI 등이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또 당류·카페인·착색료를 빼 놓은 ‘3제로(0)’ 설계로 건강한 수분 보충을 원하는 소비자 요구를 충족한다. 레몬의 상큼함과 탄산의 청량감이 더해진 것도 특징이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웰니스 트렌드에 민감한 고객들이 광동 V라인 슬림핏을 더욱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올리브베리 입점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다채로운 오프라인 유통 채널과 프로모션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